

VIP REPORT



■ 불균형적인 IT 산업, IT 서비스업 육성하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원, 이장균, 이철선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Tel (02)3669-4334 Fax (02)3669-4332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전략본부(02-3669-433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 불균형적인 IT 산업, IT 서비스업 육성하자

Executive Summary i

1. 개 요 1

2. IT 서비스업의 문제점 4

3. IT 서비스업 문제점의 원인 10

4. 정책적 시사점 15

■ HRI 경제 지표 24

1. 개요

(연구 배경) 정부는 최근 들어 IT 산업에 대한 미래 비전과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전히 IT 제조업 편향적 정책임을 알 수 있다. IT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IT 제조업이 생산하는 산출물을 수요하고, 새로운 IT제조 품에 대한 유발 수요를 창출하는 IT 서비스업 역시 동반 성장해야 한다. 더욱이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 간 불균형 성장이 심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IT 서비스업 발전은 더욱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IT 산업의 불균형 성장 문제의 해결을 위한 IT 서비스업 발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T 산업 불균형 성장) IT 제조업의 생산은 '01년 108.7조 원에서 '08년 205.6조 원으로 연평균 9.5%씩 증가한데 반해 IT 서비스업은 '01년 51.1조 원에서 '08년 123.1조 원으로 연평균 7.1%씩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또한 IT 제조업 중 반도체, 휴대전화, LCD의 경우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07년도 기준 각각 45.1%, 23%, 46.5%를 기록한데 반해 IT 서비스업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IT 산업의 불균형 성장은 한국 IT 산업의 국제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은 '07년도 9위에서 '08년도 8위, '09년에는 16위로 급락했다. WEF(World Economic Forum) 역시 한국의 IT 산업 경쟁력을 '08년 9위에서 '09년 11위로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분석했다.

2. IT 서비스업의 문제점

(글로벌화 미흡) 한국 기업 중 세계적인 IT 서비스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Financial Times에 따르면 2008년 브랜드 가치 기준으로 한국의 IT 서비스 기업은 세계 100대 기업에 단 한 곳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Business Week지 역시 2008년도 100대 IT 기업에 포함된 한국 기업은 LG전자(20위), LG디스플레이(26위), NHN(27위), 삼성전자(34위) 등 4개사를 포함시켰으나 이 중 IT 서비스 기업은 없었다.

(경제 기여도 미약) ICT 서비스(방송·통신 포함)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선진국에 비해 작다. 2006년도 한국의 총부가가치 중 ICT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OECD 분석 대상 23개 국가 중 17위를 기록했다. **IT 서비스업 부문의 무역적자 역시 확대되고 있다.** 2006년도 IT 서비스 분야의 무역적자는 1995 년의 0.7 억 달러에 비해 7.7 배 증가한 5.3억 달러를 기록했다.

(비효율성) 산업에서 차지하는 IT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낮다. OECD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IT 서비스 투입 비중은 OECD 분석 대상 19 개국 중 1995 년(0.5%)

15위, 2000년(0.7%) 16위, 2005년(0.9%) 14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또한 2005년 IT 서비스업의 중간수요비는 28.8%(전산업 50.7%), 중간투입비는 53.6%(전산업 70.1%)를 기록했다. 이는 IT 서비스업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의 형태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저생산성) IT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기여도와 단위 임금당 생산액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IT 서비스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기여도는 1994~1999년 0.2(IT 제조업 0.88), 2000~2005년 0.54(IT 제조업 1.47)로 IT 제조업에 비해 낮았다. 산업연관표를 분석한 결과, IT 서비스업의 단위 임금당 생산액은 1995년 3.55(전산업 4.68), 2000년 2.39(전산업 5.21), 2005년 2.97(전산업 5.21)로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3. IT 서비스업 부진의 원인

(해외 진출 유인 부족) 해외 진출 가능성이 큰 IT 서비스 대기업은 그룹 계열사 관련 사업을 통해 매출을 안정시킬 수 있어 해외 진출의 유인이 없다. 실제로 IT 서비스 Big 3인 삼성 SDS, LG CNS, SK C&C의 2007년도 해외 매출 비중은 각각 2.73%, 3.55%, 0.52%의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글로벌 스탠더드 미흡) 국내 IT 서비스 사업 관리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 이는 예산편성, 발주준비, 계약 및 사업관리, 유지보수 등에 걸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표준서가 없음을 의미한다. 이 때문에 국내사들이 해외사업에 대한 입찰과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애로를 겪고 있으며, 이는 해외 진출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담 정책 부서 부재) IT 서비스업만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기관이 없어 IT 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 지식경제부의 IT 서비스업 담당 부서는 소프트웨어산업과이며, IT 서비스업 중 IT 컨설팅은 지식서비스과가 담당하고 있다. 또한 IT 서비스업은 소프트웨어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준용하고 있다.

(대중소 기업 간 상생 기반 미약) IT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기업 중 대기업은 36개에 불과할 정도로 중소기업이 많아 주로 중소기업 위주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IT 서비스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며, 그 중 대기업은 36개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IT 서비스 정책은 주로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IT 서비스 수요 부진) 대표적 IT 서비스 이용 산업인 서비스산업(2008년 기준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60.3%)에 속하는 기업들이 영세하여 IT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한 재정적 여력이 부족하다. 또한 U-Health, U-City 등 IT 융합 기술 관련 법·제도의 경직성으로 IT 융합 서비스의 보급이 저조하여 IT 서비스 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4. 정책적 시사점

IT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ODA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IT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정부는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08년대비 3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증가할 **ODA(공적개발원조)* 중 기술협력이나 EDCF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 서비스 기업이 OD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ODA 사업 지원 센터(가칭)'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공적개발원조)는 크게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로 구분되며, 무상 원조는 무상자금 ODA와 기술협력, 그리고 유상 원조는 EDCF(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 대외경제협력기금)를 포함함.

둘째,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IT 서비스 사업 표준 지침서를 개발해야 한다 IT 서비스 사업 프로세스에 대해 **ISO12207*** 등 국제 표준에 근거한 표준 지침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IT 서비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설계 및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내 IT 서비스 사업 진행 방식과 해외 진행 방식을 일치시킴으로써 해외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표준 지침서를 바탕으로 사업 대가 및 과업 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 지급을 현실화해야 할 것이다.**

*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국제 기준

셋째, IT 서비스업의 정책 전담 부서와 IT 서비스산업진흥법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IT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취급을 받아 왔다 IT 서비스업의 특징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IT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IT서비스산업과'**를 신설하고, **'IT 서비스산업진흥법'**을 서둘러 제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IT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대형화 유도를 위해 **공공 IT 서비스 사업(정부·지자체가 발주에 참여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를 공공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제한의 예외 조항으로 함으로써 대중소기업간 협력 체제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IT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IT 서비스 활용 시 세금 우대 및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IT 서비스를 활용할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2009년 12월 31일 종료된다. 따라서 **IT 서비스 활용에 대한 조세특례의 기간을 연장하고 뿐만 아니라 특례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IT 서비스 융합 기술의 상용화가 관련법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애로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1. 개요

○ (IT 서비스업의 정의) IT(Information Technology) 서비스업은 최적의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조직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해당 업무 및 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며 기존 산업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함¹⁾

- 협의의 개념으로 IT 컨설팅, 시스템통합(SI : System Integration), 시스템관리(SM : System Management), IT 아웃소싱, IT 교육 등이 포함됨
- 광의의 개념으로 IT 서비스업에는 협의의 개념의 IT 서비스업에 방송서비스와 통신서비스가 포함됨
- 한국은행의 국민계정에 따르면 통신, 방송, 사업 관련 서비스 중 컴퓨터 관련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이 IT 서비스업에 해당됨

○ (IT 산업 불균형 성장) IT 제조업이 급성장하는데 반해 IT 서비스업은 느린 속도로 발전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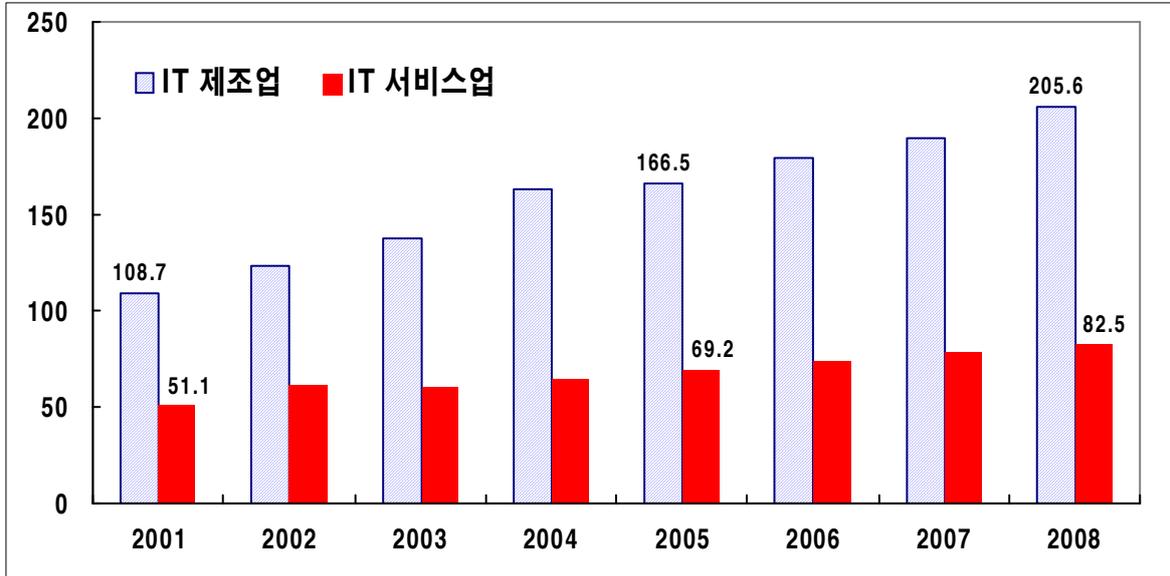
- IT 서비스업²⁾의 생산은 IT 제조업에 비해 느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IT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하락세에 있음
 - IT 제조업의 생산은 2001년 108.7조 원에서 2008년 205.6조 원으로 연평균 9.5%씩 증가한데 반해 IT 서비스업은 2001년 51.1조 원에서 2008년 205.6조 원으로 연평균 7.1%씩 성장함
 - 이에 따라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 간 생산 규모 차이는 2001년 57.7조 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에는 123.1조 원을 기록함
 - IT 서비스업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도 32%에서 2002년도 33.1%를 기록한 이후 2006년 이후 하락하여 2008년에는 28.6%를 기록함

1) 이주량(2008), "IT 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 - IT 제조업에서 IT 서비스업으로의 전환", 현대경제연구원.

2) IT 서비스업은 협의의 개념에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콘텐츠 개발 제작을 포함한 것임.

<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의 생산 추이 >

(단위 : 조원)



출처 : www.itstat.go.kr.

- IT 제조업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에 비해 IT 서비스업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지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IT 제조업 중 반도체, 휴대전화, LCD의 2007년 기준 한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각각 45.1%, 23%, 46.5%를 기록함
 - 반면 IT 서비스업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1.1%에 불과함

< 2007년 기준 세계 IT 시장 규모 및 한국 기업의 점유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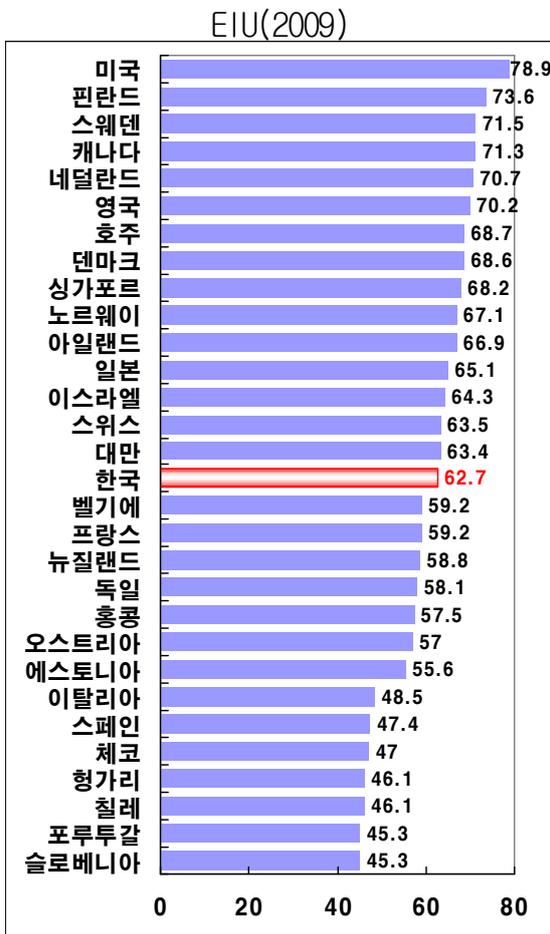
	반도체	휴대전화	LCD	IT 서비스
세계시장규모	2,496억 달러	1,200억 달러	320억 달러	7,327억 달러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	45.1%	23.0%	46.5%	1.1%

자료: IDC, 전국경제인연합회(2009. 8)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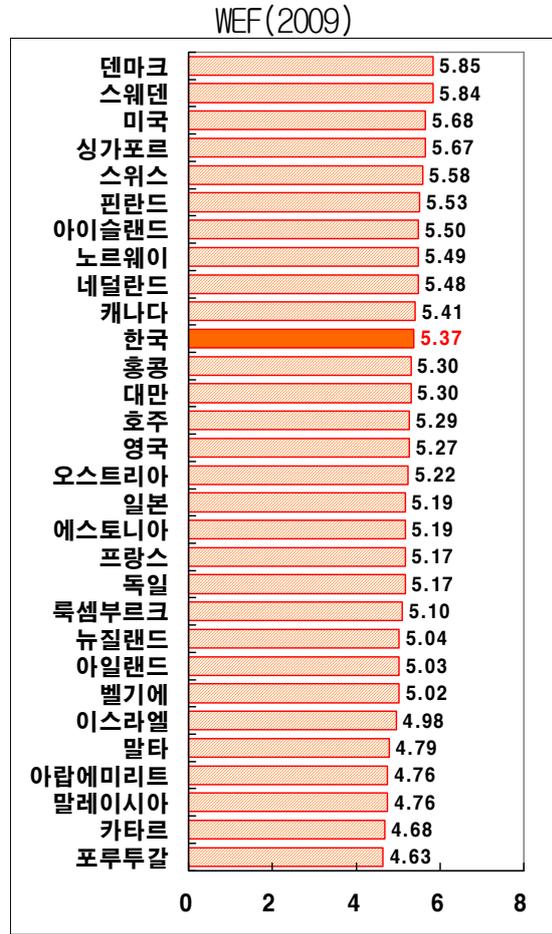
- (IT 산업의 지속 발전 한계) IT 산업의 불균형 성장으로 한국 IT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하락하고 있음

- IT 서비스업은 IT 제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수요한다는 점과 새로운 IT 제조 품에 대한 니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함
-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은 2007년도 3위(67.2), 2008년도 8위(64.1), 2009년도 16위(62.7)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WEF(World Economic Forum) 보고서 역시 한국의 IT산업 경쟁력이 2007-08년도 9위(5.43)에서 2008-09년도 11위(4.37)로 2단계 하락한 것으로 분석함

< IT산업 경쟁력 지수 상위 30개국 비교 >



출처 : EIU,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2009.³⁾



출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8-2009.⁴⁾

3) EIU에 의한 2007년과 2008년 IT 산업 경쟁력은 별첨 1 참조.

4) WEF에 의한 2007-2008년 IT 산업 경쟁력은 별첨 2 참조.

2. IT 서비스업의 문제점

○ (글로벌화 미흡) 한국 기업 중 세계적인 IT 서비스 기업은 전무한 상황임

- Financial Times지에 따르면 2008년 브랜드 가치 기준⁵⁾으로 한국의 IT 서비스 기업은 단 한 곳도 세계 100대 기업에 포함되지 못함
 - IBM(4위), HP(17위), SAP(19위), Oracle(25위), Accenture(43위) 등 IT 서비스 기업이 100대 기업에 포함됨
- Business Week지에 따르면 2008년 현재 세계 100대 IT 기업⁶⁾에 포함된 한국의 기업은 4개에 불과하며, 이 중 IT 서비스 기업은 없음
 - 세계 100대 IT 기업 중 한국 기업은 LG 전자(20위), LG 디스플레이(26위), NHN(27위), 삼성전자(34위) 등 4개로 모두 비 IT 서비스 기업임
 - 반면 세계 100대 IT 기업 중 IT 서비스 관련 기업은 43개이며, 이 중 한국 기업은 없음
 - 43개 IT 서비스 관련 기업 중 소프트웨어 8개사, IT 서비스 10개사, 텔레콤 25개사를 기록함
- IT 서비스 수출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5년 이전 1% 미만을 보이던 매출 대비 수출 비중은 2006년 이후 1% 이상을 보이고 있으나 2008년 1.3%를 기록할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IT 서비스 분야의 매출 대비 수출 비중 추이 >

(단위 :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수출액(A)	16.1	19.5	29.7	25.3	57.1	248.2	310.2	294.9
매출액(B)	11408.8	14563.8	15470.9	16300.6	19606.1	22990.9	24813.6	22111.1
비중(A/B)	0.1	0.1	0.2	0.2	0.3	1.1	1.4	1.3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5) [별첨 3] 2008년 세계 100대 브랜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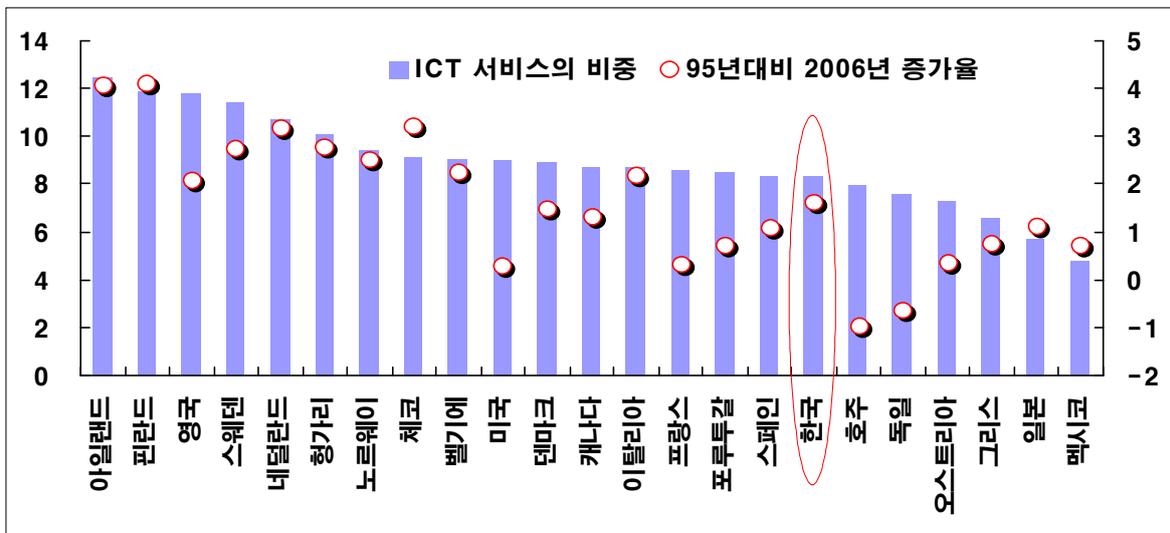
6) [별첨 4] 2008년 세계 100대 IT 기업 참조.

○ (경제 기여도 미약) IT 서비스의 총부가가치 및 무역수지가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6년도 기준 총부가가치 중 ICT 서비스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과 1995년 대비 증가율은 OECD 국가 중 하위 수준임
 - 한국의 총부가가치 중 ICT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8.3%로 OECD 23 개 국가 중 17위를 기록함
 - ICT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 점유율(1995년 대비 2006년도)의 증가율은 1.6%로 11위를 기록함

< 부가가치에서 ICT 서비스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2006년도) >

(단위 : %)



출처 :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8.

- IT 서비스업 부문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고 있음
 - 한국의 2006년도 IT 서비스 수출 규모는 2.4억 달러로 OECD 28개국(데이터가 없는 멕시코, 스위스 제외) 중 22위를 기록함
 - 반면 수입 규모는 7.7억 달러로 OECD 28개국 중 17위를 기록함
 - 2006년도 IT 서비스 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는 5.3억 달러로 1995년의 0.7억 달러에 비해 7.7배 증가함

< 국가별 IT 서비스업의 수출 및 수입 >

(단위 : 백만 달러)

	1995			2006		
	수출	수입	수지	수출	수입	수지
아일랜드	105	306	-201	20,682	656	20,026
영국	1,705	518	1,187	11,949	4,889	7,060
캐나다	788	529	259	4,033	2,020	2,013
스페인	1,279	976	303	3,961	2,094	1,867
룩셈부르크				2,210	668	1,542
스웨덴	121	119	2	3,567	2,245	1,322
벨기에			0	2,848	1,979	869
오스트리아	84	171	-87	1,501	1,059	442
독일	1,602	2,379	-777	9,385	8,947	438
핀란드	888	615	273	1,488	1,126	362
체코	28	22	6	885	538	347
네덜란드	638	651	-13	3,902	3,746	156
호주	167	173	-6	1,049	922	127
아이슬랜드	17	2	15	89	17	72
노르웨이	122	149	-27	1,239	1,200	39
터키			0	11	14	-3
프랑스	509	482	27	1,936	1,966	-30
슬로바키아	8	16	-8	170	200	-30
그리스	362	55	307	203	254	-51
헝가리	93	58	35	485	543	-58
뉴질랜드	29	58	-29	184	270	-86
포르투갈	40	110	-70	186	300	-114
폴란드	28	135	-107	409	584	-175
덴마크			0	1,216	1,491	-275
한국	6	76	-70	248	598	-350
이탈리아	207	590	-383	873	1,699	-826
미국	2,775	422	2,353	10,096	11,092	-996
일본	1,223	2,443	-1,220	966	3,126	-2,160

출처 : OECD Information Technology Outlook 2008.

주 : 한국은 한국은행 국제수지 계정.

○ (비효율성) 산업에서 차지하는 IT 서비스의 투입 비중이 낮으며, 전·후방 연쇄효과가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함

- 기준 한국의 산업 전체 투입액에서 차지하는 IT 서비스업의 투입액 비중(%)은 분석대상 19개국 중 1995년 15위, 2000년 16위, 2005년 14위를 기록함

· IT 서비스업의 투입액 비중은 1995년 0.5%, 2000년 0.7%, 2005년 0.9%로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산업 전반에서 IT 서비스업의 활용도가 낮음을 시사함

< OECD 국가별 IT 서비스업 투입 비중 >

	1995년		2000년		2005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룩셈부르크	0.7%	13	1.1%	12	3.5%	1
스웨덴	1.7%	1	3.0%	1	2.7%	2
덴마크	1.1%	4	2.4%	2	2.5%	3
영국	1.0%	6	2.1%	3	2.3%	4
오스트리아	0.9%	7	1.6%	6	1.8%	5
일본	1.6%	2	1.7%	5	1.7%	6
네덜란드	0.7%	10	1.5%	7	1.7%	7
이탈리아	1.0%	5	1.4%	8	1.6%	8
핀란드	0.7%	11	1.2%	10	1.5%	9
프랑스	1.4%	3	2.0%	4	1.4%	10
벨기에	0.7%	12	1.3%	9	1.3%	11
미국	0.8%	8	1.1%	11	1.1%	12
헝가리	0.8%	9	0.9%	13	1.1%	13
한국	0.5%	15	0.7%	16	0.9%	14
독일	0.6%	14	0.7%	15	0.8%	15
그리스	0.1%	18	0.9%	14	0.8%	16
포르투갈	0.3%	16	0.6%	18	0.7%	17
폴란드	0.0%	19	0.5%	19	0.7%	18
스페인	0.3%	17	0.6%	17	0.6%	19

자료 : OECD IO Table 1995, 2000, 2005.

7) 산업연관표 상에서 컴퓨터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IT 서비스 산업으로 정의하고, IT 서비스업의 투입액을 총투입액으로 나누어 산출함.

- IT 서비스업은 선도 산업의 유형 중 가장 낮은 산업에 해당함
 - 산업은 전·후방연쇄효과의 크기에 따라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 최종 수요적 제조업형,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형,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형로 구분됨⁸⁾
 - IT 서비스업의 중간수요비는 1995년 53.2%, 2000년 21.4%, 2005년 28.8%를 기록했으며 1995년을 제외하고 전산업 중간수요비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IT 서비스업의 중간투입비는 1995년 62.1%, 2000년 58.9%, 2005년 53.6%를 기록했으며, 전산업 중간투입비와 비교해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IT 서비스업은 전·후방 연쇄효과가 전산업 평균에 못 미치는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형에 속함

< 중간 수요비 및 중간 투입비에 따른 산업 분류 >

	중간수요형 ⁹⁾ ($\frac{W_j}{Z_j} > \frac{W_T}{Z_T}$)	최종수요형 ($\frac{W_j}{Z_j} < \frac{W_T}{Z_T}$)
제조업형 ¹⁰⁾ ($\frac{U_j}{X_j} > \frac{U_T}{X_T}$)	중간 수요적 제조업형	최종 수요적 제조업형
원시산업형 ($\frac{U_j}{X_j} < \frac{U_T}{X_T}$)	중간 수요적 원시산업형	최종 수요적 원시산업형

출처 : 강광하(1994), 산업연관분석론.

U_j : IT 서비스업의 중간 투입액, X_j : IT 서비스업의 총투입액,
 W_j : IT 서비스업의 중간 수요, Z_j : IT 서비스업의 총수요,
 U_T : 전산업의 중간 투입액, X_T : 전산업의 총투입액,
 W_T : 전산업의 중간 수요, Z_T : 전산업의 총수요,
 $\frac{U_j}{X_j}$: IT 서비스업의 중간 투입비, $\frac{W_j}{Z_j}$: IT 서비스업의 중간 수요비

- 8) 강광하(1994), “산업연관분석론” 참조.
- 9) 중간 수요비가 클수록 IT 서비스업을 중간 투입물로 하여 산출되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인 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10) 중간 투입비가 클수록 IT 서비스업에 투입물로 사용되는 산업을 발전시키는 효과인 후방연쇄효과가 크다는 것을 의미함.

< IT 서비스업의 중간 수요비 및 중간 투입비 추이 >

	중간 수요비			중간 투입비		
	1995	2000	2005	1995	2000	2005
IT 서비스	53.2%	21.4%	28.8%	62.1%	58.9%	53.6%
산업 전체	46.2%	49.1%	50.7%	65.2%	68.8%	70.1%

○ (저생산성) IT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기여도가 제조업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2000~2005년 IT 서비스업의 연평균 노동생산성은 0.54로 IT 제조업 1.47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 기여도의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고 있음
 - IT 제조업과 IT 서비스업 간 노동생산성 기여도 격차는 1994~1999년도 0.68에서 2000~2005년도에는 0.93으로 확대됨

< 산업별 노동생산성 증가 추이 >

	1994~1999 연평균	2000~2005 연평균
IT 산업	1.08	2.01
IT 제조업	0.88	1.47
IT 서비스업	0.20	0.54

출처 : 김진용 외, "주력성장산업으로서 IT 산업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2007.

- IT 서비스업의 단위 임금당 생산액¹¹⁾은 1995년 3.55, 2000년 2.39, 2005년 2.97로 전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함

< 단위 임금당 생산액 추이 >

	IT 서비스업	전산업
1995년도	3.55	4.68
2000년도	2.39	5.21
2005년도	2.97	5.21

11) 산업연관표에서 총산출액을 피용자보수로 나눈 금액으로 임금 1원당 생산액을 의미함.

3. IT 서비스업 문제점의 원인

- IT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 유인 부족, 글로벌 스탠더드 부재, 전담 정책 부서 부재, 대중소 상생 기반 미약, IT 서비스의 활용도 미흡 등 5대 걸림 돌에 의해 한국의 IT 서비스산업 발전이 저해되고 있음
- (해외 진출 유인 부족) 대기업들은 IT 서비스 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계열사 중심의 매출이 안정적이어서 해외 진출에 대한 유인이 없음
 - 대부분의 국내 대기업들은 IT 서비스 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그룹 계열사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임
 - 매출 기준 국내 10대 기업 중 삼성(1위), 현대자동차(3위), 에스케이(4위), 엘지(5위), 포스코(7위), 롯데(8위)는 계열사로 IT 서비스 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반면 계열사로 IT 서비스 회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10대 기업은 한국전력공사(2위), 대한주택공사(6위), 한국도로공사(9위), 한국토지공사(10위) 등 공기업임
 - 이처럼 대기업들이 IT 서비스 기업을 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어, 그룹 계열사의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실제로 IT 서비스기업의 그룹 계열사 의존도를 살펴본 결과, 삼성 SDD 67.2%, LG CNS 34%, SK C&C 58%의 높은 수준을 기록함¹²⁾
 - 이처럼 그룹사에 속한 IT 서비스 기업들은 각 계열사의 IT 서비스 사업을 통해 매출을 안정시킬 수 있어 해외 진출의 유인이 없음
 - 이는 그룹의 비밀 유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경쟁을 통한 사업 수행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IT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도 큼
 - 또한 글로벌화 가능성이 높은 IT 서비스 대기업은 그룹 계열사만으로도 매출을 안정시킬 수 있으므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요인이 됨
 - 실제로 주요 IT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상당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12) 동아일보 2008년 10월 23일 기사, 2007년 기준.

< 주요 IT 서비스 기업들의 해외 매출(2007년 기준) >

(단위 : 억 원)

주요 업체	총매출	해외 매출	해외매출 비중
삼성 SDS	21,641	591	2.73%
LG CNS	17,388	618	3.55%
SK C&C	11,609	600	0.52%
포스데이타	3,652	228	6.25%
쌍용정보통신	2,202	138	6.26%
현대정보기술	2,529	199	7.87%

출처 : Money Today 2008년 8월 10일자 기사.

○ (글로벌 스탠더드 미흡) 사업 관리에 있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표준 지침서의 부재 역시 IT 서비스 기업의 글로벌화를 저해하는 요인임

- 불명확한 제안 요청서, 비현실적인 사업 대가, 애매한 입찰 기업의 평가 기준 등 선진화된 발주 시스템의 부재는 산출물의 품질을 저하시킴
 - 발주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제안요청서(RFP : Request For Proposal) 상의 내용이 명확하지 못해 과업의 변경이 잦고 이로 인해 발주자가 생각했던 수준의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함
 - 전년도 노임단가나 사업비용 원가 등의 평균을 기준으로 IT 서비스 사업 대가가 결정되며, 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되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¹³⁾에서 IT 서비스산업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화된 발주 시스템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시함
 - 정부는 2009년 5월까지 선진국 수준의 상세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2009년 하반기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임

13) 2009년 5월 기획재정부 발표.

- 또한 SW 기술성 평가기준 개선 방안을 2009년 6월 마련하여 2009년 하반기에 고시·개정할 예정임
- 그러나 IT 서비스 사업 전 과정을 관장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표준 사업 관리 지침서 마련에 대한 방안이 없어 IT 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해함
 - 예산 편성, 발주 준비, 계약, 사업관리, 유지보수 등 5단계에 걸친 IT 서비스 사업 전 과정에 대한 표준 지침서가 부재함
 - 이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 내역의 변경에 대한 이력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각 단계별 산출물 관리가 명확하지 못해 사업 관리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IT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이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로 국내 기업들은 국제 기준에 적응하지 못해 입찰과 IT 서비스 프로젝트 수행에 있어 애로를 겪기 때문임
- (전담 정책 부서 부재) IT 서비스 산업만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기관이 부재하여, IT 서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한계가 있음
 - IT 서비스 산업은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며 업종별, 업무별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산업과 차이가 있음
 - 소프트웨어 산업은 하나의 제품을 생산한 후 이를 대량 복제할 수 있는 반면 IT 서비스 산업은 IT 컨설팅, 교육, 시스템 통합, 시스템 유지·보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의 요구에 따른 customizing이 필요함
 - 또한 IT 서비스산업은 소프트웨어와 같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사업 대가 기준, 하도급 관리 등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준용해야 함
 - IT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정책 담당 부서의 부재로 IT 서비스 지원책은 소프트웨어 산업과 컨설팅 산업에 산재되어 마련되고 있음
 - IT 서비스와 소프트웨어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IT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은 지식경제부의 소프트웨어산업과가 담당하고 있음

- IT 컨설팅에 대한 지원 정책은 컨설팅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식서비스과'가 담당하고 있음

○ (대중소 기업 간 상생 기반 미약) IT 서비스 산업의 대중소 기업 상생을 위한 정책 기반이 빈약함

- IT 서비스 기업은 2,000여 개에 달하며, 이 중 대기업은 36개에 불과할 정도로 IT 서비스 산업은 영세함¹⁴⁾
 - '중소기업진흥법'에 따르면 IT 서비스 산업의 중소기업 기준은 상시 근로자 수 300명 미만이거나 매출액 300억 원 이하임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이거나, 매출액 300억 원을 초과하면 IT 서비스 대기업에 속함
- 그동안 IT 서비스 산업 관련 정책은 본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진흥에 편향됨
 -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제한함으로써, 공공 SW 사업의 대기업 참여를 제한함
 - 더욱이, 2009년 5월부터는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상향 조정함
 - 물론, 이는 IT 서비스 중소기업의 공공 SW 사업에 대한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M&A를 통한 대형화를 저해하고 우수한 인력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에 비해 서비스의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는 부정적 측면도 있음

○ (IT 서비스 수요 부진) 대표적 IT 서비스 이용 산업인 서비스 산업의 영세성과 IT와 서비스업간 융합 관련 법·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IT 활용도가 저조함¹⁵⁾

- 서비스 산업의 영세성으로 재정적 여력이 없어 IT 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함

14) IT 서비스산업협회 내부 자료.

15) 황종성(2009), "서비스산업 선진화 정책방향 보고서", 한국개발연구원.

- 사업체 1개당 종사자 수의 경우, 서비스업은 2000년 3.6명에서 2007년 4.1명으로 증가했으나 제조업의 10.2명(2007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사업체당 종사자 수 비교 >

(단위 : 만 개, 만 명)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사업체당 종사자 수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2000	31.3	262.7	333.3	949.6	10.6	3.6
2001	33.1	263.7	341.6	994.6	10.3	3.8
2002	33.4	271.4	339.3	1040.1	10.2	3.8
2003	32.7	277.2	341.1	1048.6	10.4	3.8
2004	32.8	277.2	341.7	1055.6	10.4	3.8
2005	33.4	263.7	342.1	1050.5	10.2	4.0
2006	33.7	271.2	341.8	1084.2	10.1	4.0
2007	33.1	275.5	338.0	1131.8	10.2	4.1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U-City, U-Health¹⁶⁾ 등 IT와 서비스업 간 융합 기술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의료법은 원격 진료 및 치료 서비스에 대한 자격 및 허용 범위, 원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한계, 원격의료 수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U-Health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¹⁷⁾
 - U-City는 주택법 상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16) 병원과 환자 간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 병원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진찰·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17) 한국 IT 서비스산업협회(2009), "IT기반 융합기술(의료/IT의료융합중심) 사업화 동향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3. IT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5대 정책 과제

- IT 서비스 부문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수출 지원, 글로벌 스탠더드 마련, 전담 정책 부서 설치, 대중소 협력 체제 유도, IT 서비스 활용도 제고 등 5대 과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함
- (수출 지원책 마련) ODA¹⁸⁾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IT 서비스 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시켜야 함
 - 정부는 ODA 중 기술협력이나 EDCF¹⁹⁾를 적극 활용하여, 국내 IT 서비스 기업이 개도국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교두보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임
 - 2009년 9월 23일 정부는 UN 총회에서 2015년까지 ODA 규모를 2008년의 3배로 확대할 것을 밝힘
 - 국내 IT 서비스 기업의 인력을 개도국에 파견할 수 있도록 ODA 중 양자 간 무상 원조에 해당하는 기술협력을 적극 활용해야 함
 - 개도국에 대한 IT 서비스 사업의 타당성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EDCF를 적극 활용해야 함
 - IT 서비스 기업이 OD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ODA 사업 지원 센터(가칭)'를 설립해야 할 것임
 - ODA에 대한 정보는 운영 주체별로 산재해 있어, IT 서비스 사업 발주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 일본(해외컨설팅트협회) 등도 국제개발은행(MDB :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²⁰⁾ 정보 교환 및 수주 활동 지원을 위한 유사 형태의 기관을 운영하고 있음²¹⁾

18)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는 크게 양자간 원조와 다자간 원조로 구분되며 양자간 원조는 다시 무상 원조와 유상 원조로 구분됨. 무상 원조에는 무상자금 ODA와 기술협력이 있으며, 유상 원조에는 EDCF가 있음. 양자간 원조는 직접적으로 지원되는 반면, 다자간 원조는 MDB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됨.

19)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은 후발 개도국에게 차관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20) World Bank, Asian Development Bank 등 국제 금융 기구를 통칭함.

○ (글로벌 스탠더드 마련)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IT 서비스 사업 표준 지침서를 개발해야 함

- 국내 기업이 해외 IT 서비스 사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맞는 사업 관리가 체화되어 있어야 하므로, IT 서비스 사업 표준 지침서는 조속히 개발되어야 함
- IT 서비스 사업 프로세스에 대해 ISO12207²²⁾ 등 국제 표준에 근거한 표준 지침서를 개발해야 할 것임²³⁾
 - 일본의 경우, 단일 사업자가 정보시스템 구축계약을 포괄하여 계약하고 요구 분석, 기본설계, 상세설계, 개발, 테스트 등 5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설계 및 개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경에 따른 대가 지급을 용이하게 함
 - 국제 수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 미국의 경우, IT거버넌스정책지침서, 전사적아키텍처관리지침서, 정보시스템획득지침서, 프로젝트관리지침서 등 다양한 표준 지침서들이 마련됨
- 또한 표준 지침서를 바탕으로 사업 대가 및 과업 내용 변경에 대한 대가 지급을 현실화해야 할 것임
 -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에 의한 단일 기준으로 사업 대가를 현실화하기보다는 개발된 표준 지침서를 바탕으로 IT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대가 기준을 마련해야 함
 - 그동안 과업 내용 변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가 기준이 없었으나, 표준 지침서가 개발될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중 제 65조인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과업 변경에 대한 대가 기준을 명확히 삽입해야 함

21)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2009.5.

22) 국제표준화기구(ISO :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 프로세스로 소프트웨어 개발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각종 작업 단계들을 정의함.(www.wikipedia.org 참조)

23) IT서비스산업협회 내부자료.

○ (전담 정책 부서 설치) IT 서비스 산업의 발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IT 서비스 산업 지원을 위한 독자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함

- IT 서비스 산업의 지원을 전담하는 정책 부서를 설치해야 할 것임
 - 지식경제부 성장동력실에 소프트웨어 관련 부서가 2개(소프트웨어산업과, 소프트웨어진흥과) 있으므로, 이 중 하나를 IT 서비스 산업과로 전환해야 함
- IT 서비스는 소프트웨어와 본질적으로 다르므로 소프트웨어의 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진흥법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IT 서비스 사업 표준 지침서를 바탕으로 가칭 'IT 서비스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 함

○ (대중소 협력 체제 유도) IT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 협력 체제를 유도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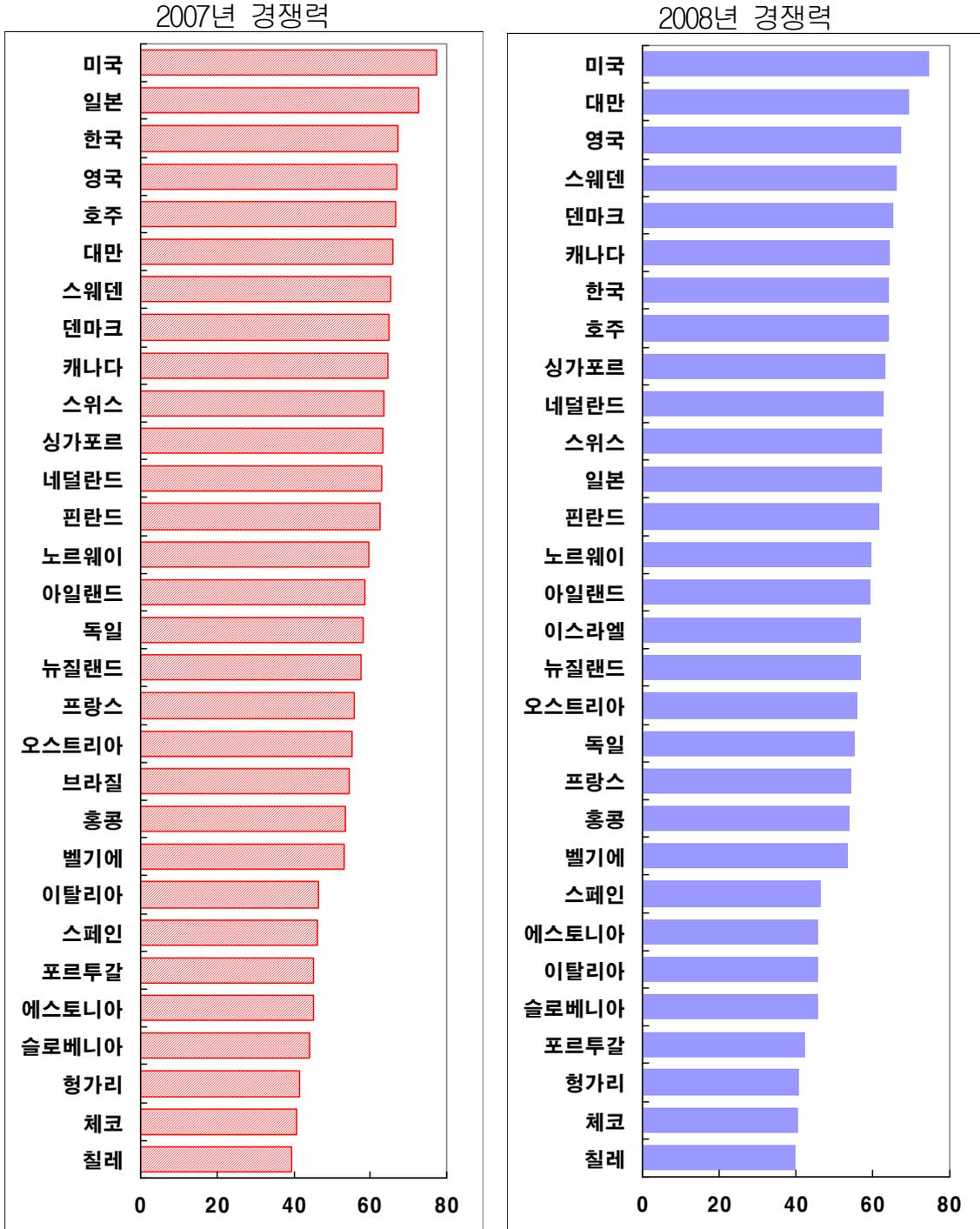
- 중소기업이 영세하여 경쟁력이 취약하므로, M&A를 통해 한계 기업을 퇴출시키고 중소기업의 대형화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파트너로서 동등한 입장이 아닌 하청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이므로, 규모 확대를 통해 대형화가 선행되어야 함
 - 공공 IT 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중 일정 규모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공공 IT 서비스 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기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유도하여, IT 서비스의 질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할 것임
 - 공공 SW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을 제한 중 대기업이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주는 예외 조항을 추가해야 함

○ (IT 서비스 활용도 제고) IT 서비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IT 서비스 활용 시 세금 우대 및 영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해야 함

- IT 서비스 활용에 대한 조세 특례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임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정개선, 전사적자원관리(ERP :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공급망관리(SCM Supply Chain Management), 고객관계관리(CRM :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등의 IT 서비스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활용할 경우 투자금액의 3%(중소기업의 경우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함
 - 지식관리시스템(KMS : Knowledge Management System), 업무프로세스재설계(BPR : 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등의 IT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조세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기간 역시 2009년 12월 31일에서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IT 서비스 융합 기술의 상용화가 관련법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임
 - Green IT, U-Health, U-City 등 IT 서비스 융합 기술의 상용화를 통한 IT 서비스의 활용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관련법에 대한 정비 또는 보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HR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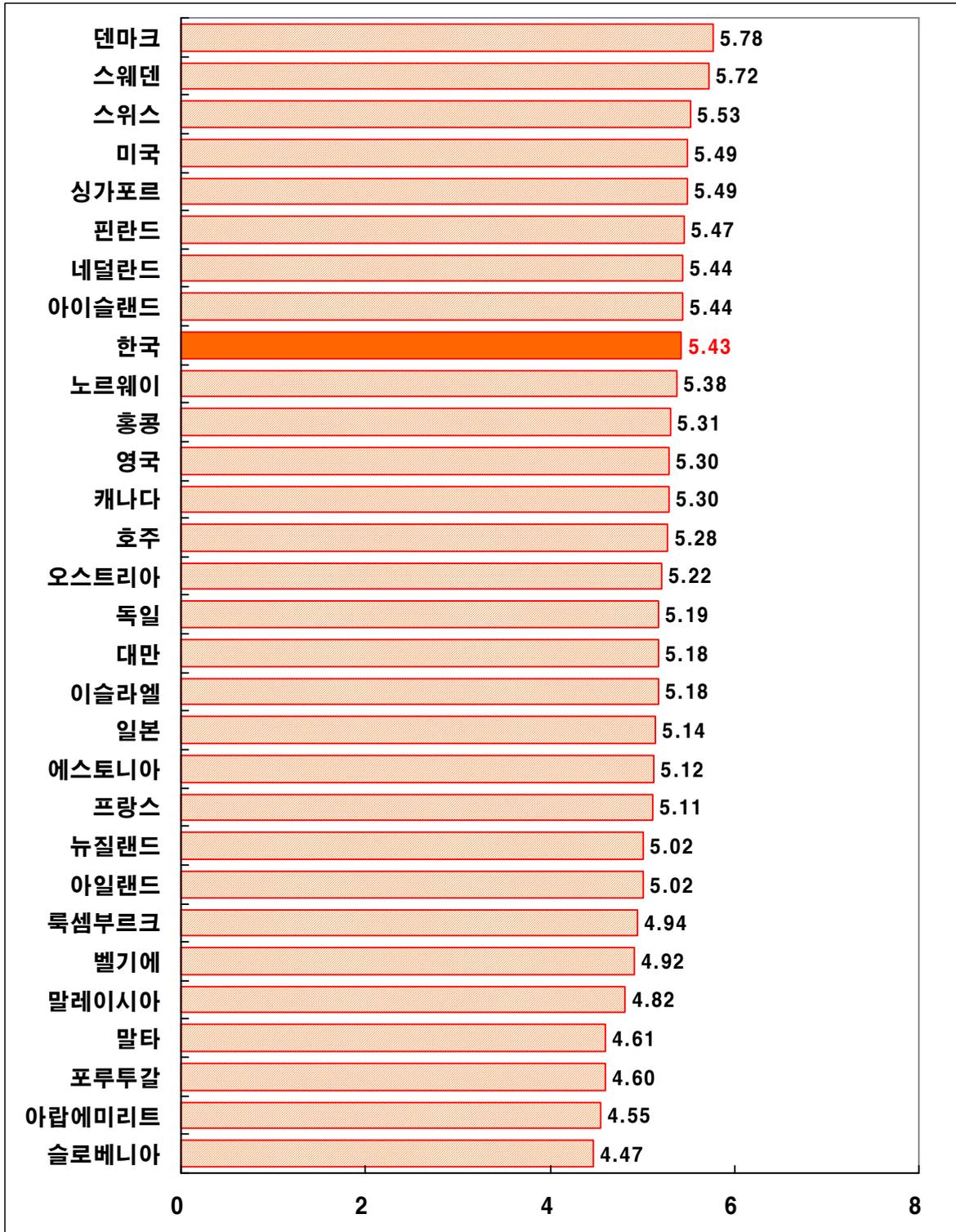
임상수 연구위원 (happylims@hri.co.kr, 02-3669-4334)

【별첨 1】 IT산업 경쟁력 지수 상위 30개국 비교 (EIU)



출처 : EIU, Benchmarking IT industry Competitiveness, 2007, 2008.

【별첨 2】 2007-2008 IT산업 경쟁력 지수 상위 30개국 비교(WEF)



출처 : WEF, The Global Information Technology Report 2007-2008.

【별첨 3】 2008년 세계 100대 브랜드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순위	브랜드명
1	Google	34	Verizon Wireless	67	Nissan
2	Microsoft	35	Porsche	68	DHL
3	Coca-Cola	36	Visa	69	FedEx
4	IBM	37	Wells Fargo	70	Home Depot
5	McDonald's	38	Santander	71	MTS
6	Apple	39	NTT DoCoMo	72	Beeline
7	china Mobile	40	Mercedes	73	Canon
8	GE	41	Bank of America	74	Aldi
9	Vodafone	42	Dell	75	Avon
10	Marlboro	43	Accenture	76	Zara
11	Wal-Mart	44	Pepsi	77	O2
12	ICBC	45	L'Oréal	78	Standard Chartered
13	Nokia	46	American Express	79	Red Bulls
14	Toyota	47	Carrefour	80	China Merchant Bank
15	UPS	48	RBC	81	Yahoo
16	BlackBerry	49	Citi	82	Hermès
17	HP	50	Honda	83	JP Morgan
18	BMW	51	Siemens	84	Ariel
19	SAP	52	Budweiser	85	Tide
20	Disney	53	Orange	86	Gucci
21	Tesco	54	Ebay	87	MasterCard
22	Gillette	55	BBVA	88	Goldman Sachs
23	Intel	56	Colgate	89	Starbucks
24	China Construction Bank	57	Target	90	Barclays
25	Oracle	58	H&M	91	State Farm
26	Amazon	59	Nike	92	Morgan Stanley
27	Bank of China	60	Subway	93	ING4
28	AT&T	61	TD	94	KFC
29	Louis Vuitton	62	Movistar	95	Ikea
30	HSBC	63	T-Mobile	96	Nivea
31	Pampers	64	Wrigley's	97	Esprit
32	Nintendo	65	Auchan	98	Bradesco
33	Cisco	66	Chase	99	Tim
				100	Lowe's

출처 : Financial Times.

【별첨 4】 2008년 세계 100대 IT 기업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순위	기업명
1	AMAZON.COM	34	SAMSUNG ELECTRONICS	67	QUALCOMM
2	APPLE	35	CHINA UNITED TELECOMMUNICATIONS	68	MEMC ELECTRONIC MATERIALS
3	RESEARCH IN MOTION	36	MOBILIL	69	BOUYGUES
4	NINTENDO	37	CARSO GLOBAL TELECOM	70	DIGITAL CHINA HOLDINGS
5	WESTERN DIGITAL	38	KONINKLIJKE KPN	71	ACER
6	AMÉRICA MÓVIL	39	CISCO SYSTEMS	72	HARRIS
7	CHINA MOBILE	40	WISTRON	73	CHICONY ELECTRONICS
8	NOKIA	41	MOBILE TELECOMMUNICATIONS	74	WIPRO
9	ASUSTEK COMPUTER	42	ACTIVISION	75	YAHOO! JAPAN
10	HIGH TECH COMPUTER	43	REDECARD	76	POWERCHIP SEMICONDUCTOR
11	GOOGLE	44	CYPRESS SEMICONDUCTOR	77	MANTECH INTERNATIONAL
12	MTN GROUP	45	ZTE	78	EMC
13	IBM	46	LENOVO GROUP	79	NEUF CEGETEL
14	MOBILE TELESYSTEMS	47	TELEMAR NORTE LESTE	80	BOE TECHNOLOGY GROUP
15	TELEFÓNICA	48	CORNING	81	TPV TECHNOLOGY
16	VIMPELCOM	49	PRICELINE.COM	82	INVENTEC
17	HON HAI PRECISION IND.	50	TAIWAN SEMICONDUCTOR MFG.	83	FOXCONN TECHNOLOGY
18	AT&T	51	DIGI.COM	84	SAIC
19	ACCENTURE	52	QUANTA COMPUTER	85	TOKYO ELECTRON
20	LG ELECTRONICS	53	AU OPTRONICS	86	DELTA ELECTRONICS
21	BHARTI AIRTEL	54	AMPHENOL	87	AUTOMATIC DATA PROCESSING
22	ORACLE	55	REDINGTON INDIA	88	ADVANCED SEMICONDUCTOR ENG.
23	MICROSOFT	56	NAVTEQ	89	ROGERS COMMUNICATIONS
24	MAROC TELECOM	57	SEAGATE TECHNOLOGY	90	UNITED INTERNET
25	TURKCELL ILETISIM HIZMETLERI	58	INTEL	91	SATYAM COMPUTER SERVICES
26	LG DISPLAY	59	NVIDIA	92	NAN YA PCB
27	NHN	60	ADVANCED INFO SERVICE	93	NANYA TECHNOLOGY
28	COSMOTE MOBILE TELECOM	61	VMWARE	94	ADOBE SYSTEMS
29	MILLICOM INTL. CELLULAR	62	TRANSCEND INFORMATION	95	HCL TECHNOLOGIES
30	HEWLETT-PACKARD	63	SAP	96	TD AMERITRADE HOLDING
31	COMPAL ELECTRONICS	64	L-3 COMMUNICATIONS HLDGS.	97	NIKON
32	SISTEMA	65	INDRA SISTEMAS	98	NIDEC
33	ORASCOM TELECOM	66	RELIANCE COMMUNICATIONS	99	COMMSCOPE
				100	INTUIT

출처 : Business Week.

HRI 經濟 指標

🔍 主要 經濟 指標 推移와 展望

구 분		2008(P)	2009(E)			2010(E)	
			1/4분기	2/4분기	연간		
국 민 계 정	경제성장률 (%)	2.2	-4.2 (0.1)	-2.2 (2.6)	-1.0	3.9	
	최종소비지출 (%)	1.6	-2.0	0.9	0.7	3.1	
	민간소비 (%)	0.9	-4.4	-0.8	-0.5	2.9	
	총고정자본형성 (%)	-1.7	-8.1	-2.7	-2.7	4.3	
	건설투자 (%)	-2.1	1.6	3.7	3.0	3.2	
	설비투자 (%)	-2.0	-23.5	-15.9	-12.0	7.5	
대 외 거 래	경상수지 (억 \$)	-64.1	85.8	131.7	342.5	160	
	통 관 기 준	무역수지 (억 \$)	-132.7	30.6	177.0	332.6	226
		수출 (억 \$) 증가율 (%)	4,220.1 (13.6)	744.2 (-25.2)	910.6 (-20.5)	3,574.8 (-15.3)	3,935.9 (10.1)
		수입 (억 \$) 증가율 (%)	4,352.7 (22.0)	713.6 (-32.7)	733.6 (-36.1)	3,242.2 (-25.5)	3,709.9 (16.0)
소비자물가 (평균, %)		4.7	3.9	2.8	2.7	3.0	
실업률 (평균, %)		3.0	3.8	3.8	3.7	3.4	
국제유가(평균, Dubai, 달러)		94.3	44.3	59.3	60	85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3.4	1,418.3	1,286.1	1,280	1,150	